

구민과 함께하는 열린의회

# 2024년도 서구의회 공무국외출장 보고서

2024. 6.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 목 차

---

1. 출장 개요 .....	1
2. 출장국가 이해 .....	3
3. 주요 방문지 현황 .....	6
가. 유네스코 세계 문화유산 .....	6
나. 전통시장 벤치마킹 .....	11
다. 도시계획 .....	13
라. 랜드마크 .....	15
4. 출장 소감문 .....	19

# 2024년도 서구의회 공무국외출장 보고서

## 1. 출장 개요

□ 기 간 : 2024. 4. 24.(수) ~ 5. 2.(목) [7박9일]

□ 출장국가 : 타이,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 출장인원 : 8명(의원 5명, 공무원 3명)

○ 의 원 : 고경애, 김수영, 백종한, 오광록, 안형주

○ 공무원 : 이귀엽, 이성숙, 서지우

□ 출장내용

○ 우리 구 지역여건 및 현안사업 등에 활용할 수 있는 출장 분야를 의원이 선정하여 출장 추진

○ 레저, 관광, 복합문화 공간 조성 등 우수정책 사례를 벤치마킹하여 우리 구 지역 여건에 맞는 양질의 정책을 고안·제공

○ 주요일정

월 일 (요일)	출발지	도착지	방문기관 및 업무내용	접촉 인물 (직책 포함)
제1일 4/24(수)	인 천	방 콕	인천국제공항 출국 방콕 수완나폼 국제공항 도착	
제2일 4/25(목)	방 콕	아유 타야	아유타야(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아시아틱 야시장 찻페어 야시장	세계문화유산 관리자
제3일 4/26(금)	방 콕	쿠알라 룸푸르	왕궁, 수상시장, 수상가옥, 새벽사원 방콕 수완나폼 국제공항 출발 쿠알라룸푸르 도착 新 행정도시 푸트라자야	

월 일 (요일)	출발지	도착지	방문기관 및 업무내용	접촉 인물 (직책 포함)
제4일 4/27(토)	쿠알라 룸푸르	쿠알라 룸푸르	말라카 · 네덜란드광장 · 포르투갈인들이 세운 세인트폴 성당 · 첩훤텡사원(말라카에서 가장 오래된 중국사원) · 존커스트리트 잘란알로 야시장	세계문화유산 관리자
제5일 4/28(일)	쿠알라 룸푸르	쿠알라 룸푸르	이스타나 네가라(말레이시아 국왕이 거주하는 왕궁) 페트로나스 트윈타워 국립모스크(이슬람사원, 국민 신앙의 상징물)	국립박물관 한국어 해설사
제6일 4/29(월)	쿠알라 룸푸르	싱가 포르	말레이시아 국립박물관 메르데카광장(아시아 각국의 이미지를 담은 독립광장) 쿠알라룸푸르 출발 싱가포르 도착 머라이언 공원 부기스 스트리트 재래시장	
제7일 4/30(화)	조호르 바루	싱가 포르	술탄왕릉, 회교사원 도시재개발청(URA) 센토사 섬 보타닉가든(국립 식물원)	도시재개발청 관계자
제8일 5/1(수)	싱가 포르	싱가 포르	가든스바이더베이(클라우드 포레스트돔) 가든랩소디 마리나베이샌즈 스카이파크 싱가포르 출발	
제9일 5/2(목)	싱가 포르	인천	인천국제공항 입국 광주 도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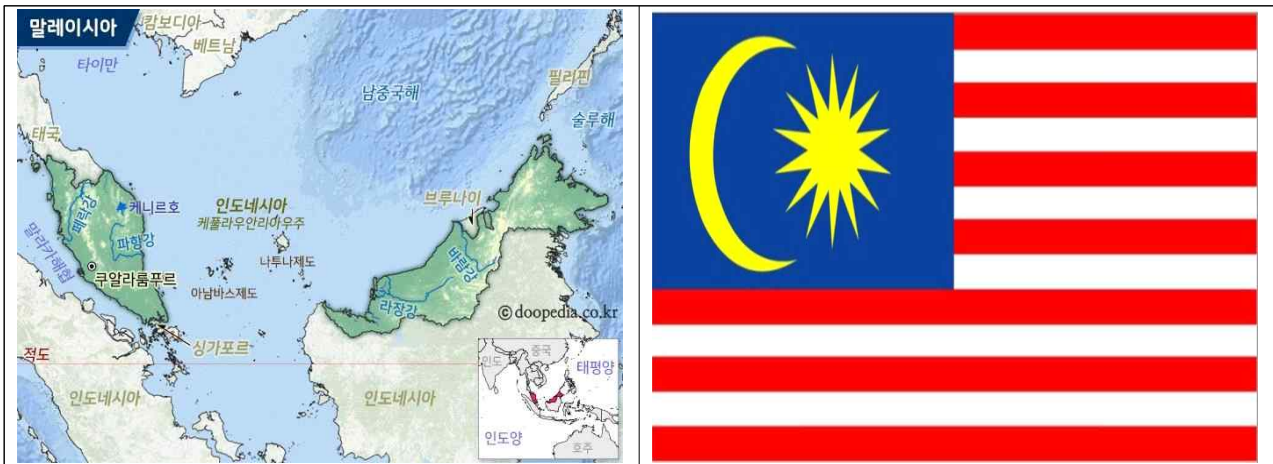
## 2. 출장국가 이해

### 가. 타이



- 위치: 동남아시아 인도차이나반도 중앙
- 인구: 71,896,898명
- 수도: 방콕
- 면적: 513,120km<sup>2</sup>
- 공식명칭: 타이 왕국(Kingdom of Thailand)
- 기후: 열대몬순기후
- 민족 구성: 타이인(75%), 중국인(14%)
- 언어: 타이어
- 정부/의회형태: 입헌군주제 / 양원제
- 종교: 불교(95%), 이슬람교(5%)
- 화폐: 바트(THB)

## 나. 말레이시아



- 위치: 동남아시아 말레이반도
- 인구: 34,678,525명
- 수도: 쿠알라룸푸르
- 면적: 330,290km<sup>2</sup>
- 공식명칭: Malaysia
- 기후: 열대우림기후
- 민족 구성: 말레이인(67%), 중국인(20%), 원주민
- 언어: 말레이어
- 정부/의회형태: 입헌군주제 / 양원제
- 종교: 불교, 힌두교, 이슬람교
- 화폐: 말레이시아 링깃(RM)

## 다. 싱가포르



- 위치: 동남아시아
- 인구: 6,052,709명
- 수도: 싱가포르
- 면적: 740km<sup>2</sup>
- 공식명칭: 싱가포르 공화국(Republic Of Singapore)
- 기후: 열대성기후
- 민족 구성: 중국인(77%), 말레이인(14%), 인도인
- 언어: 말레이어, 영어, 중국어
- 정부/의회형태: 중앙집권공화제 / 다당제&단원제
- 종교: 불교(43%), 이슬람교(15%), 도교
- 화폐: 싱가포르 달러(\$)

### 3. 주요 방문지 현황

#### 가. 유네스코 세계 문화유산

##### 【참고】

출장 내용은 현지에서 파악한 자료로서 방문기관 안내책자, 관계자 브리핑과 현지 통역사의 주민면담, 현지도서자료, 현장조사 등으로 수집함

#### 1) 아유타야(타이)

- 1350년 유통왕에 의해 건설되어 1767년 미얀마의 침공을 받기 전까지 417년간 타이의 수도였던 아유타야는 33대에 걸쳐 왕들이 기거한 곳으로 1969년 태국 정부에 의해 유적의 복원이 시작됐고 1976년에 역사 공원으로 지정됐으며 1991년 유네스코에 의해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됐다.
- 아유타야의 인구는 1600년까지 약 30만 명, 1700년 무렵에는 약 100만 명에 달했을 것으로 추정되며 당시 세계에서 가장 큰 도시 중 하나로 400여 개의 사원과 19개의 성곽을 가진 도시였다.
- 아유타야는 시암만에서부터 시작한 차오프라야강이 항로가 되어 자유롭게 외국 문명과의 교류가 이루어졌다.
- 사원 문화를 기반으로 하는 태국에서 종교적인 공간인 동시에 휴식을 제공하는 복합문화 공간의 역할도 하고 있었으나 일부 세계문화유산에 시멘트를 사용하거나 에어컨 실외기 등을 설치하며 다소 부적합한 관리행태도 볼 수 있었다.

#### 가) 왓 야이차이 몽콘

- 타이 왕조 중 가장 번성했던 아유타야는 1350년에 건설되어 미얀마의 침입을 받기 전까지 400년 넘게 문화적으로 번영했던 시대이다.
- 그 중 왓 야이차이 몽콘은 1357년 유통왕이 스리랑카에서 유학하고 돌아온 승려들의 명상을 위해 세운 사원으로 거대한 와불과 불탑인

째디로 유명한 곳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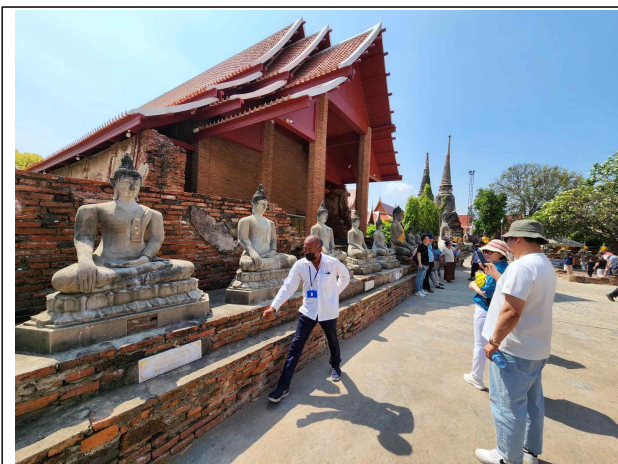
- 70m나 되는 탑 안쪽으로는 금이나 동전을 떨어뜨려 소원을 비는 곳이 있고, 불탑 주변으로 부처들이 모여 명상하는 것처럼 불상이 삼면으로 줄지어 세워져 있다.

#### 나) 왓 프라시산팻

- 옛 아유타야 왕궁터의 초입에 위치한 왓 프라시산팻은 왕실불교 행사를 전담했던 왕실전용 사원으로 가장 크고 중요한 사원이다.
- 입구에 들어서면 3개의 높다란 짜디가 나오는데 역대 왕 3명의 유골, 의복, 불상이 안치되어 있다.
- 과거 170kg의 금을 입힌 16m 높이의 입불상이 있었으나 1767년 미얀마 군에 의해 약탈되고 사원은 불에 타버려 현재 남아 있는 것은 방콕 왕조 초기에 재건 된 것이다.

#### 다) 왓 프라마하탓

- 라마공원 동쪽에 있는 왓 프라마하탓은 ‘위대한 유물의 사원’ 이라는 뜻으로 1384년에 나래수엔 왕에 의해 세워졌으며 아유타야에 있는 크메르 양식의 탑 중에서 가장 먼저 만들어진 것이다.
- 가운데의 탑은 높이가 50m에 달했다고 하나 지금은 심하게 파괴되었고 관목 숲 군데군데 남아 있는 탑과 불당의 흔적을 보고 당시 사원의 규모를 짐작해 볼 수 있다.



## 2) 말라카(말레이시아)

- 14세기 인근 수마트라섬에서 온 파라메스바라가 이슬람 왕국을 세운 후, 인도양과 남중국해를 잇는 지리적 이점 덕분에 해상 실크로드의 거점 도시로 성장했다.
- 1511년 포르투갈이 말라카를 정복하여 아시아 최초의 유럽 식민지로 삼고 향신료 무역을 독점했으며 기독교 전파를 위한 기지로 만들었다. 이 무렵 명나라의 정화가 이끄는 함대도 말라카를 방문하였는데, 이때부터 중국인들이 말라카로 이주해 살기 시작했으며 현지인과 결혼하여 중국과 말레이 문화가 섞인 페라나칸 문화를 만들었다.
- 1641년에는 네덜란드, 1824년에는 영국이 차례로 말라카를 정복해 식민지로 삼았다. 이런 역사적 배경 때문에 말라카에는 서양 식민지풍 건물과 중국풍의 건물들이 잘 보존되어 있어 2008년 유네스코에 의해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됐다.
- 1650년 네덜란드 총독과 관리들의 공관으로 지어진 스타더이스는 네덜란드식 석공예와 목공예의 진수를 볼 수 있는 동양에서 가장 오래된 네덜란드식 건축물이다. 스타더이스 옆에 있는 그리스도교회는 1753년 건축되었으며 교회 외부에는 시계탑이, 내부에는 200년 전에 만든 수공예 의자가 원형 그대로 유지되어 있어 문화적 가치가 높다.

### 가) 네덜란드 광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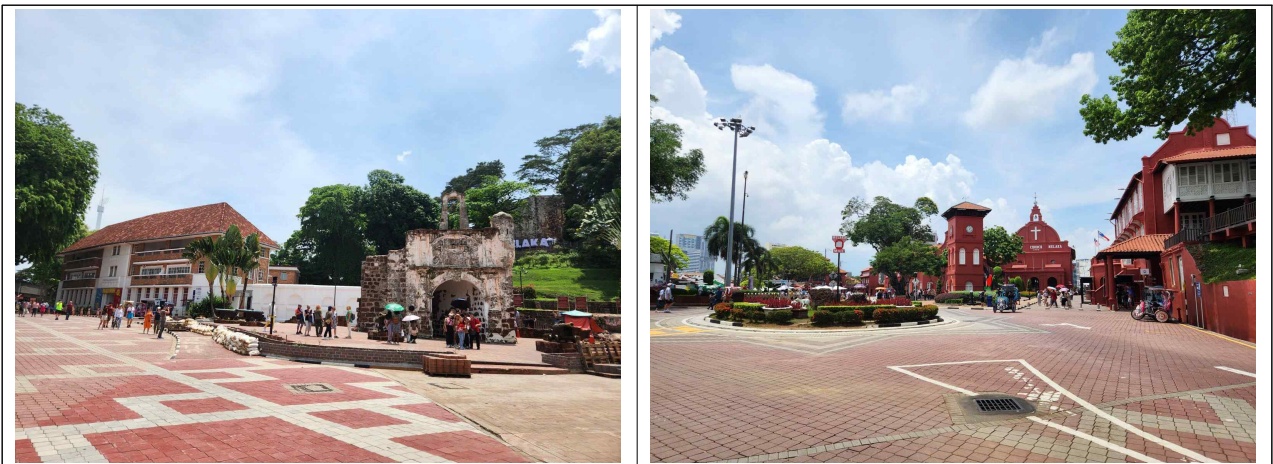
- 1511년 말라카는 포르투갈에 점령당했고 이후 네덜란드와 영국이 차례로 말라카를 지배했다. 이들 서구 열강들이 자리 잡은 곳이 네덜란드 광장과 세인트 폴 언덕 인근이다.
- 말라카 시내의 중심부에 있는 광장에는 17~18세기 네덜란드 식민지 시대에 세워진 네덜란드 총독 공관인 스타더이스, 그리스도 교회, 시계탑, 분수 등이 있고 남쪽에는 네덜란드 식민지풍 건물, 북쪽에는 중국풍의 건물이 있다.

#### 나) 첩훤텡 사원

- 말라카를 동서양을 잇는 해상 교역국으로 발전시킨 15세기 초 명나라의 정화 장군을 기리기 위해 1646년에 건립된 사원이다.
- 말레이시아에서 가장 오래된 중국 사원으로 건축에 들어간 모든 재료를 중국에서 가져와서 지은 절로 유명하다.
- ‘첩훤텡’이라는 이름은 ‘푸른 구름’이라는 뜻으로 사원의 강렬하고 다양한 빛깔과 기도하는 현지인의 모습이 어우러져 이색적인 감성이 가득한 곳이다.
- 2003년 유네스코의 보호 건물로 지정되면서 그 역사적 가치를 세계적으로 인정받았다.

#### 다) 존커 스트리트

- 중국인과 말레이시아인 사이에서 태어난 페라나칸이 정착하면서 조성된 차이나 타운으로 다양한 종교 사원들을 볼 수 있다. 유럽, 아시아 등의 여러 상품을 전시, 판매하고 있으며 저녁에는 다양한 먹거리가 있는 야시장이 선다.
- 현지어로 잘란 항 제밭으로 불리는 이곳은 바바&뇨냐 헤리티지 박물관을 비롯해 모스크와 사원, 옛 네덜란드 하우스, 아티스트 갤러리 등이 밀집해 있다.



### 3) 보타닉가든(싱가포르)

- 2015년 싱가포르 최초의 유네스코 문화유산으로 지정된 보타닉가든은 영국인들이 설계하여 조성한 열대의 식민지 식물원이다. 싱가포르 건국의 아버지이자 자연주의자였던 스태포드 래플스 경은 1822년 식물원과 실험용 정원을 조성했다.
- 래플스 경의 사망 후 재정난으로 문을 닫았지만 1859년 지금의 위치로 이전해 재개관하고 1874년부터 정부가 직접 관리하기 시작했다. 이후 화훼 산업, 하이브리드종 개발 등 연구와 더불어 정원 조성에 힘쓴 결과 국제적인 수준의 열대식물 전문 기관으로 발전했다.
- 1859년 개원 이래로 경관 설계가 잘 보존되어 있어 과학 지식 분야, 특히 재배 고무의 개발 등을 포함하여 열대 식물학 및 원예학의 발전에 있어서도 중요한 역할을 해왔다.
- 150년이 넘는 역사를 자랑하는 싱가포르 최대의 국립 식물원으로 공원의 역할도 함께 하고 있어 많은 현지인들이 휴식을 취하러 찾아 오는 장소이기도 하다.
- 열대림, 장미, 난초 등 다양한 식물종이 자라고 있으며 가든 내에는 유명인사들의 이름을 따와 지은 난을 포함하여 1,000여 종류의 난을 볼 수 있는 국립 난초 정원이 있다.



## 나. 전통시장 벤치마킹

### 1) 아시아티크 야시장(타이)

- 짜판 딱신 남쪽 워터프론트에 조성된 방콕을 대표하는 대규모 야시장이다. 아시아티크는 강가 산책로와 강변을 바라볼 수 있는 대형 레스토랑, 바가 있는 워터프론트 지역, 패션·액세서리 등의 상점이 밀집된 팩토리 지역, 푸트코트가 있는 타운 스퀘어 지역, 인테리어·디자인 상점이 밀집해 있는 짜런끄룽 지역, 워터프론트와 팩토리 지역 옆 대관람차가 있는 아시아티크 파크 등으로 나뉜다. 과거 물류 창고를 개조하여 만든 현대식 야시장으로 쇼핑 외에도 칼립소 카바레, 무에타이 공연장 등이 있어 다채로운 공연을 즐길 수 있고 푸드 서커스에서는 세계의 음식을 맛볼 수도 있다.

### 2) 방콕 수상시장(타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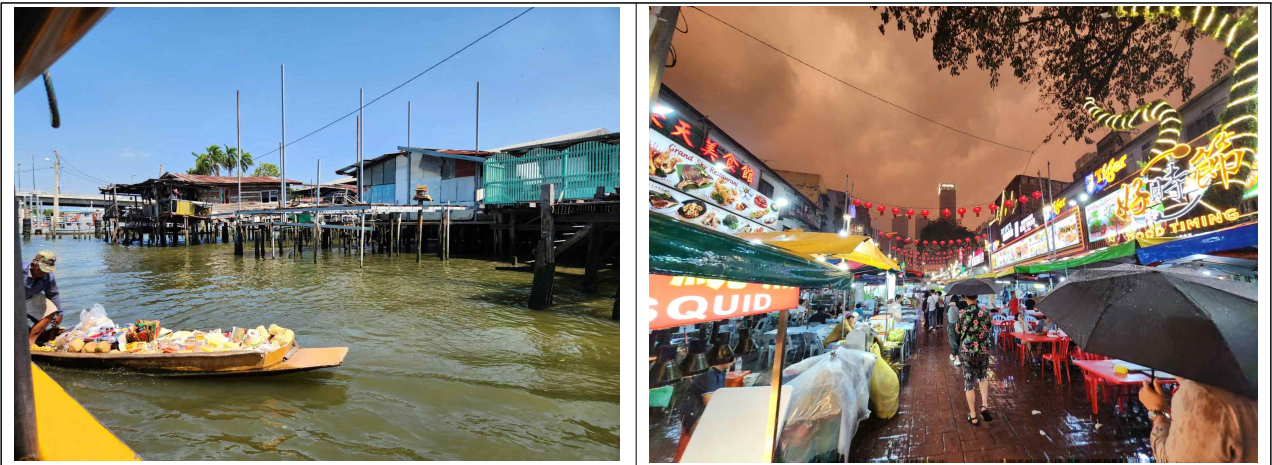
- 방콕 서쪽은 담넌 싸두악과 암파와 수상시장이 있다. 이곳에서는 쪽배를 타고 기념품이나 과일, 음식을 파는 수상시장 풍경과 수상가옥을 볼 수 있다. 과거 현지인들의 이색적인 주거 형태와 경제활동의 모습을 생생하게 보고 체험할 수 있어 방콕에서 경험할 수 있는 특별한 문화 콘텐츠로 자리 잡았다.
- 물과 함께 살아가는 태국인들의 생활상을 수상시장을 통해 가까이에서 접할 수 있었을 뿐만 아니라 전통을 보존하고 지키려는 태국 당국의 노력도 엿볼 수 있었다.

### 3) 잘란알로 야시장(말레이시아)

- ‘잘란’이란 거리라는 의미로 ‘잘란알로’는 알로 거리를 지칭한다. 부킷 빈탕 뒤편 거리를 가득 채운 노천 테이블이 쪽 늘어서 있는 진귀한 광경을 볼 수 있고 갖가지 식재료를 이용한 다양한 음식을 맛볼 수 있어 쿠알라룸푸르의 먹거리 문화를 대표하는 야시장이다.
- 특히, 대부분 메뉴에는 각각의 별미 사진과 함께 영어로 주재료부터 부재료까지 적혀있어 있어 외국인 관광객들도 중국, 인도, 태국, 말레이 음식 등을 쉽고 편리하게 주문할 수 있었다.

#### 4) 부기스 스트리트 재래시장(싱가포르)

- 원래는 포장마차들이 즐비한 복잡한 시장 골목이었지만 2005년 공사를 통해 구역이 나뉘고 구역마다 가게들이 들어서 현재는 600개가 넘는 점포가 성행하고 있다. 옷가지들부터 시작해서 선물용으로 살 수 있는 소품, 액세서리 등을 파는 가게들이 늘어서 있고 푸드코트도 있다. 주말이 되면 이 거리는 현지인들로 꽉 차서 걷는 것조차 힘들 정도로 사람들로 북적인다. 우리 양동시장보다 폭은 좁고 사람은 많아 전통 시장의 느낌이 배가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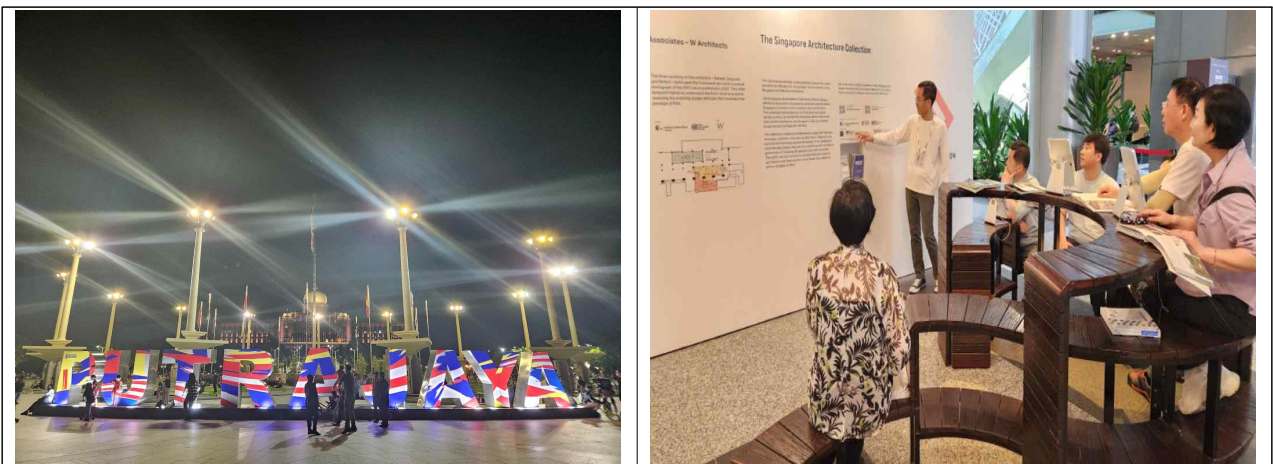
## 다. 도시계획

### 1) 新 행정도시 푸트라자야(말레이시아)

- 우리나라 세종특별자치시가 벤치마킹한 말레이시아의 행정수도로 말레이 반도 서남쪽 쿠알라룸푸르 남쪽 25km 거리에 있다. ‘푸트라자야’라는 지명은 말레이시아의 아버지로 불리는 초대 총리 툰쿠 압둘 라만 푸트라 의 이름에서 유래했다. 20세기 초 고무농장 지역이었으나 수도 쿠알라룸푸르의 과밀과 혼잡에 따라 이미 한계에 다다른 쿠알라룸푸르의 기반시설 부담을 경감 하기 위해 일찍이 행정수도 이전지로 예정되었다.
- 1980년대에 행정수도 개발이 발의된 후 1995년부터 도시건설이 진행되었고 2001년 연방직할시로 지정되었으며 이후 2010년에 이르기까지 수도 쿠알라룸푸르에 있던 총리청사와 관저를 비롯한 정부청사들이 대부분 이전했다.
- 2009년에 국제 열기구대회 개최를 유치하고 난 후 그를 기념하기 위해 열기구 공원을 조성했으며 매년 열기구 축제를 개최하여 이곳을 찾는 이들에게 색다른 경험을 제공하고 있다.
- 쿠알라룸푸르와 철도 및 고속도로를 통해 연결되어 있는 푸트라자야의 공간 배치는 큰 호수를 두고 총 8개의 다리로 설계되었고 전 지역의 약 40%가 자연녹지로 구성되어 있으며 인공호수 건설을 통해 38km에 이르는 긴 수변공간을 조성하고 자연정화기능을 담당하는 자연습지를 생태계 체험 활동에 활용했다. 호수에서는 요트와 수상스키 등 레저 활동을 즐길 수 있고 수상버스와 유람선이 떠다닌다.
- 푸트라자야의 관공서 건물은 건물 자체가 관광자원으로 활용될 정도로 각기 특색있으면서도 독창적이었다. 업무공간을 문화공간으로 탈바꿈한 푸트라자야 신도시의 정체성을 확인할 수 있었고 광주 서구에서도 심미적 기능이 고려된 디자인의 건축물에 대한 용적률·건폐율 완화 방안도 검토해 보자는 의견이 있었다.

## 2) 도시재개발청(싱가포르)

- 작은 국토를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중장기 도시비전 및 발전전략 수립이 매우 뛰어나 도시계획을 수출하는 나라로 유명한 싱가포르, 국가 설립 초기부터 ‘가든시티’라는 슬로건으로 녹지를 구성해 정원문화 산업이 특히 발달했다.
- 우리나라처럼 획일화된 성냥갑 건물이 아닌 전부 독특한 디자인으로 설계되어 다채로움을 뽐내는 싱가포르를 탄생시킨 도시재개발청의 도시재개발은 현재도 계속되고 있었다.
- 싱가포르를 ‘일하기 좋고 즐길 것이 많은 도시’로 개발을 지속하는 것을 모토로 도시를 총 6개 지구로 나누어 마스터플랜을 수립하여 각각의 세부 실시계획을 추진하고 있다.
- 싱가포르 도시공간 전역을 조망하고 장래 입지 할 시설물과 변모하게 될 싱가포르를 한눈에 이해할 수 있었으며 마스터플랜과 세부 실시계획에 대하여 항상 열람이 가능하도록 정보를 개방하여 도시재개발에 대한 국민들의 이해와 참여가 자연스럽게 이루어지고 있었다.
- 재개발을 위한 공사는 도시 곳곳에서 진행되고 있지만 국가사업에 높은 신뢰를 보이는 싱가포르 국민은 큰 민원 제기 없이 일상과 공존하고 있다. 재개발, 재건축, 택지개발 사업지 주변에 반대 현수막으로 갈등을 여실 없이 표현하는 한국과는 대조적인 부분이다.
- 싱가포르는 땅이 전부 국가소유로 임차만을 허용하기 때문에 각종 국책 사업을 추진할 때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토지이용이 가능하다.



## 라. 랜드마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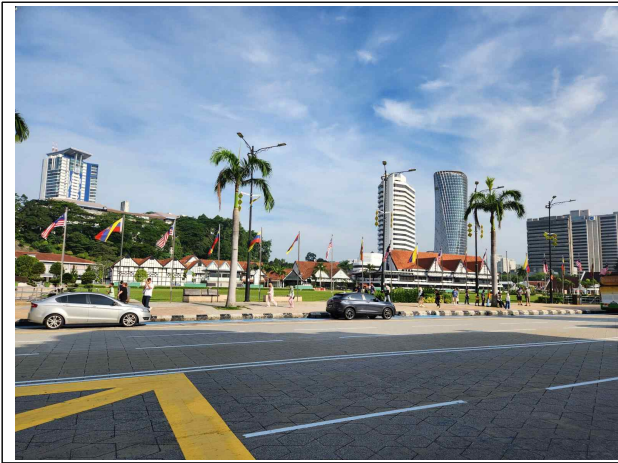
### 1) 방콕 왕궁(타이)

- 라마 1세가 1782년에 방콕으로 수도를 옮기면서 만들어진 왕궁으로 타이 전통 건축양식으로 지어졌으며, 화려하지 않은 곳이 하나도 없을 정도로 웅장하면서도 정교하게 꾸며져 있다.
- 왕궁에서는 타이 역대 왕들의 대관식이 진행됐으며 금, 유리, 보석 등으로 꾸며진 내부는 외부 못지않은 화려함을 자랑한다.
- 타이의 왕실은 타이인들의 자랑이자 타이의 상징이기 때문에 왕궁 입장 시에는 복장에 유의하고 왕을 모독하는 행위는 법적으로 절대 금지되어 있다.



### 2) 페르데카 광장(말레이시아)

- 1957년 8월 31일 영국 통치에서 벗어나 처음 말레이시아 국기가 게양된 광장으로 페르데카는 ‘독립’을 뜻한다. 매년 국경일 퍼레이드를 비롯해 많은 국가행사와 기념행사가 이곳을 중심으로 열린다.
- 영국 통치 시절에 형성된 주변 지역으로 역사적 가치가 있는 건물들이 많고 무엇보다 독립의 중심지로 현지인들에게도 역사적 의미가 큰 곳이다.
- 8월 31일은 말레이시아의 독립기념일로 페르데카광장 앞 대로에서 거리 행진을 비롯한 대대적인 행사가 치러지고 다민족국가인 말레이시아에서 종교와 문화, 인종에 상관없이 함께 축하할 수 있는 가장 큰 국가 기념일이다.



### 3) 페트로나스 트윈타워(말레이시아)

- 말레이시아의 수도 쿠알라룸푸르에 지어진 마천루이자 말레이시아의 랜드마크로 말레이시아 국가 홍보에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건물이다. 452m, 88층 높이의 쌍둥이 빌딩으로 1998년 국영 석유 회사인 페트로나스 소유이다. 오른쪽 1관은 일본 건설사, 왼쪽 2관과 스카이 브리지는 한국 건설사에서 각각 시공했으며 한국 건설사는 일본에 비해 35일 늦게 착공하였지만 최종 완공은 6일을 앞섰다.
- 41층에는 두 빌딩을 잇는 스카이 브리지가 86층에는 전망대가 있어 쿠알라룸푸르 시내를 조망할 수 있다.
- 타워 외형은 금속으로 지어진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콘크리트 건물로 외벽만을 스테인리스강과 유리로 장식했고 지상부터 6층까지는 쿠알라룸푸르 최대의 상가로 구성되어 있다.



#### 4) 마리나베이샌즈(싱가포르)

- 마리나 베이 샌즈는 싱가포르 마리나 베이에 접한 종합 리조트 5성급 호텔이다. 라스베이거스의 카지노 리조트 운영 회사 라스베이거스 샌즈가 개발했다. 설계는 모세 사프디, 쌍용건설이 건설하였다. 52도 기울어진 모습으로 유명하다.
- 배 모양의 수영장을 머리에 얹은 200m 높이의 빌딩 세 개로 이루어져 있다. 호텔로 유명해졌지만 프리미엄 쇼핑몰, 카지노, 컨벤션을 한 공간에서 즐길 수 있는 복합 리조트이기도 하다.
- 호텔과 연결된 마리나베이샌즈 엑스포·컨벤션센터 규모는 축구장 16개 크기에 달하고 4층에 있는 그랜드볼룸은 아시아에서 가장 큰 8,000㎡로 11,000명을 수용할 수 있다. 쇼핑몰, 예술 과학 박물관, 카지노, 컨벤션 센터 등 하나하나가 거대한 덩어리로 결합 된 콤플렉스라고 할 수 있다.



#### 5) 가든스바이더베이(싱가포르)

- 2012년 6월에 새롭게 오픈한 싱가포르 최대 규모의 공원으로 도심 속의 자연이라는 콘셉트에 맞게 깨끗한 초록색 녹지와形形色색의 아름다운 꽃들이 잘 조성되어 있다.
- 이곳은 크게 야외 정원과 실내 온실로 구분되며 세부적으로는 플라워 돔, 수퍼트리 그로브, 월드 오브 플랜츠, 베이 이스트 가든, 클라우드 포레스트, 헤리티지 가든스, 드래곤플라이&킹피셔 레이크스로 구분된다.

- 2개의 돔으로 구성된 가든스바이더베이는 동형 식물원인 플라워 돔과 실내 폭포와 멸종 위기 식물들로 이루어진 큰 동산 클라우드 포레스트 돔으로 나뉜다.
- 싱가포르 기후에서 서식할 수 없는 식물은 물론 멸종 위기의 희귀 식물을 볼 수 있고 인공산과 폭포를 조성하여 싱가포르의 랜드마크로써 지역의 관광산업 및 이미지 제고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 외부 정원에는 거대한 나무 모양의 초현실적인 조형물인 슈퍼트리에 있는데 각 슈퍼트리를 구름다리로 연결하여 독특한 외관을 자랑하는 한편, 온실에서 필요로 하는 빗물을 모으는 기능과 함께 환기 장치로써의 역할도 하고 있다.



## 4. 출장 소감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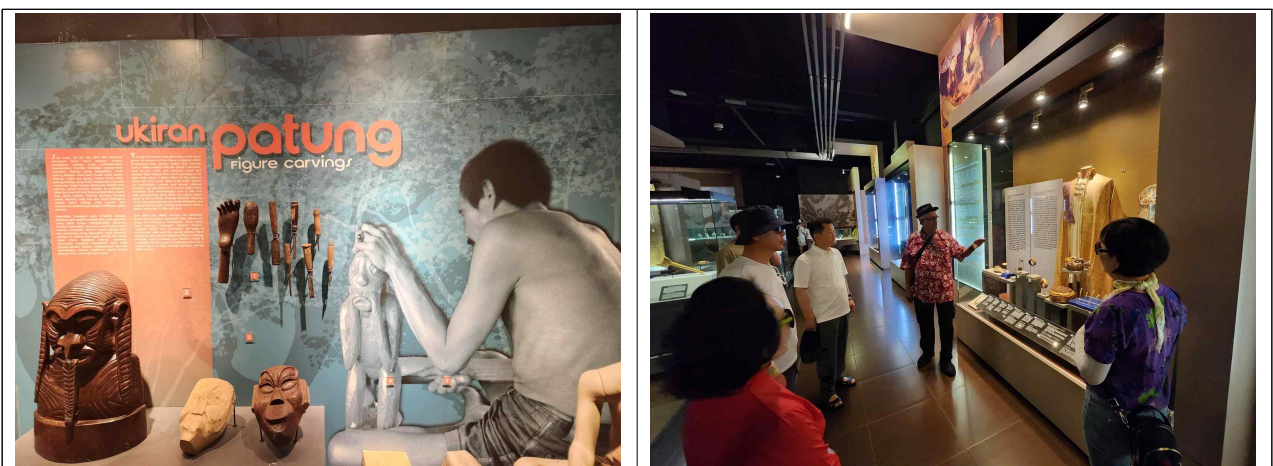
### 가. 고경애 의장 소감문

- 2023년 한해에만 2,278만명이 찾으며 전 세계 여행객 방문 1위 도시를 차지한 방콕, 도대체 어떤 매력이 이토록 문화관광산업을 번창하게 하는지 출장을 통해 직접 확인할 수 있었다. 타이는 타이다움을 타이만의 방식으로 가장 잘 표현하는 그들만의 비법이 있었다. 현대적인 빌딩들로 도시풍경이 펼쳐진 방콕 안에서 방콕 왕궁과 새벽사원의 존재감은 이채롭고 경이롭기까지 하다. 또한 유수의 호텔과 대형 복합 문화공간이 밀집한 시암 지역의 압도적인 인프라는 관광객에게 양질의 휴식을 제공하기에 충분했다. 무엇보다 인상적인 부분은 전통시장뿐만 아니라 복합문화쇼핑몰에서조차 다소 조악하고 투박해 보이는 전통문화 상품 등을 매우 다양한 형태로 구성해서 타이만의 색을 입히려 노력했다는 점이다. 전 세계 유수의 자본력 앞에서도 자국의 전통문화를 지키고 개발하며 타이다움을 이어 나가는 모습이야말로 우리가 전 세계 여행객 방문 1위 도시 방콕에서 배워서 우리 지역에 접목해야 할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한다. 또한 말레이시아에서는 인구의 0.7%에 불과한 원주민인 오랑아슬리의 전통문화를 보존하기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 단체에서 경제적 지원을 통해 다양한 계승 방법을 모색하고 있다고 한다. 전통의 가치를 바로 세워 국가의 정체성을 확립하는 이러한 모습이야말로 우리가 배워가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한다. 끝으로 싱가포르에서는 바샤커피의 브랜드화가 매우 인상적이었다. 싱가포르에 가면 빠지지 않고 사는 기념품 제1호가 바샤커피일 정도로 인기가 많고 실제로 싱가포르 창이국제공항 면세점에서 인산인해를 이루고 있는 유일한 곳이 바로 바샤커피라는 브랜드였다. 바샤커피는 일명 커피계의 에르메스라는 별명으로 싱가포르를 대표하는 프리미엄 커피 브랜드지만 실제 싱가포르에 1호점을 시작한 것은 2019년으로 5년밖에 되지 않는다. 여러 나라에서 생두를 수입해 일일이 싱가포르에서 핸드 로스팅을 거치기 때문에 신선도가 매우 좋을뿐더러 풍성한 향기를 즐길 수 있다. 포장지나 쇼핑백에는 금박이 둘러 있어 커피의 가치를 높여 준다.

5년밖에 되지 않은 자국 브랜드를 전 세계적으로 알리고 싱가포르를 대표하는 관광상품으로 개발하여 자리 잡을 수 있게 한 일련의 브랜드화 과정은 우리 지자체에서도 적극적으로 벤치마킹 해야 할 부분이다. 광주 서구 하면 떠오르는 대표적인 브랜드화된 상품이 반드시 필요할 뿐더러 이를 위해 지역기업은 물론 행정적인 지원이 뒷받침되어야 할 것이다.

- 광주신세계가 복합쇼핑몰 건립을 위해 지난 3월 부지를 매입하면서 오는 7월 폐관을 앞둔 유스퀘어에 광주다움과 서구다움을 광주서구만의 방식으로 표현하는 방안을 찾아 우리 지역을 대표하는 복합문화공간으로 탈바꿈 하는것 또한 이번 출장의 목적이다. 광주고속버스터미널을 품고 있는 유스퀘어는 광주의 관문이자 얼굴이고 광주시민의 발이자 문화공간이기도 하다. 이러한 이유로 광주유스퀘어 부지에 새로 조성될 복합쇼핑몰에는 지역을 대표하는 기업과 지역을 대표하는 먹거리, 상점 등 우리 지역 소상공인의 입점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가 반드시 필요하다. 이는 인허가 단계 전인 설계과정에서부터 다양한 의견이 반영되어야 할 사항으로 2028년 예정인 준공검사 전후에는 실질적으로 반영이 불가능한 사항이다. 예를 들면 우리 지역의 소중한 일자리인 광주글로벌모터스의 캐스퍼 자동차를 시승해 볼 수 있고, 우리 광주 서구의 고향기부 답례품인 베비에르의 마왕과이를 맛볼 수 있는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최소한의 인프라 구축 방안이 우리 지역의 행정과 정치의 숙제로 남아 있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용적률·건폐율 완화 및 입지규제최소구역 지정 외에도 조례를 통한 지방세 감면 등 합리적이고 합당한 인센티브 제공 방안 등이 심도있게 연구되고 면밀하게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법인명만 광주신세계가 아닌 광주의 문화상품을 브랜딩하고 더 나아가 광주를 세계적인 도시로 리딩하는 등 사회적인 책임을 다할 때 비로소 지역의 대표 기업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을 것이다. 기업의 투자 유치는 물론 규제 완화를 위한 행정적인 노력이 적절하게 조화를 이룰 때 비로소 지역 경제 활성화와 함께 양질의 일자리 창출이 가능하다고 본다.
- 2019년 8월 의정활동을 통해 영주주공아파트 재건축 현장 내 간이 식당인 일명 함바식당 입찰을 저지하고 공사장 주변의 지역 음식점을 이용

하도록 하며 아사 직전인 지역 상권을 지켜낸 적이 있다. 원주민이 이사를 떠난 뒤 지역 공동화 현상으로 주변 상권은 붕괴 직전이었고 이러한 위기 상황에서 지역 상인 및 주민들과 뜻을 모아 포스코 건설이라는 대기업에 맞서 지역경제를 지키기 위해 모든 역량을 쏟은 결과였다. 같은 맥락으로 부산을 대표하는 삼진어묵이 높은 임대료 탓에 부산역에서 철수를 결정한 가운데 대전을 대표하는 성심당도 기존 월 1억 원인 임차료를 4억 원으로 인상을 요구받으며 자금압박에 버티지 못하고 대전역에서 철수하려고 하자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지난 5월 17일 급하게 성심당을 방문하여 “각 지역의 노포들이 문화관광지로서 역할을 하고 있는데 대전 성심당이 그런 곳이다”라는 의미심장한 말을 하며 지역 문화를 지키기 위한 본격 행보에 나섰다. 자유시장 경제라는 명목하에 형식적인 평등을 내세워 대규모 자본과 마케팅으로 지역상권이 잠식되는 것은 올바른 경쟁이라고 할 수 없다. 무조건적인 차별로 지역경제를 지켜야 한다는 것이 아니라 대등하지는 않더라도 최소한 경쟁할 수 있는 기회는 주어져야 실질적인 평등의 가치 실현을 할 수 있는 것이리라 생각한다. 대규모의 자본과 경쟁해야 하는 우리 지역의 모든 기업인과 소상공인들을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를 구축하여 저출생 및 고령화와 함께 가속화된 지방소멸의 위기를 지혜롭게 극복해 나갈 수 있도록 광주 서구의회 의장으로서 말은 바소임을 다 하고자 한다.



## 나. 김수영 의원 소감문

- 이번 공무국외출장에서는 3개 나라의 랜드마크를 보고 들으며 랜드마크의 가치에 대해 고찰하고 이를 우리 광주 서구에 어떻게 접목할 수 있을지 고민해 보는 계기가 되었다. 타이 하면 바로 방콕 왕국이 떠오르고 말레이시아는 페트로나스 트윈타워, 싱가포르는 마리나베이샌즈가 떠오른다. 뇌에 시냅스가 되어 바로 연상이 된다고 하는 표현이 더 맞는 거 같다. 국가나 도시를 대내외적으로 좋은 이미지로 형상화하기 위해서는 많은 시간과 투자가 필요하다. 하지만 제대로 된 랜드마크가 형성된 곳은 생각보다 그렇게 많지 않다. 다민족국가인 타이 국민들을 하나로 이어주는 타이 왕실은 타이인들의 자랑스러운 타이의 상징이다. 라마 1세가 1782년 방콕으로 수도를 옮기면서 만들어진 방콕 왕국은 타이 전통 건축양식으로 지어졌으며 역대 왕들의 대관식이 진행되었던 이곳은 타이의 상징과도 같은 곳이다. 도심에 있는 방콕 왕궁은 타이의 랜드마크로 불리기에 충분한 가치가 있었다. 말레이시아 수도 쿠알라룸푸르에는 말레이시아를 상징하는 페트로나스 트윈타워가 있다. 우리나라 사람들에게는 삼성물산과 극동건설이 왼쪽 2관과 스카이 브리지를 지어 더욱 잘 알려진 건축물이기도 하다. 88층 높이의 쌍둥이 빌딩으로 말레이시아 국가 홍보에 빠지지 않고 등장하며 무엇보다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건축물에 다섯 번이나 선정되며 매년 세계에서 수많은 건축 관련 종사자들이 이 건축물을 직접 보기 위해 말레이시아를 찾는다고 한다. 41층 스카이 브리지와 86층 전망대는 개방하여 관광객을 유치하고 오른쪽 1관은 국영 석유 회사인 페트로나스가, 왼쪽 2관은 외국계 회사가 각각 사무공간으로 사용 중이라고 하니 일석 이조이다. 싱가포르의 랜드마크인 마리나베이샌즈 또한 우리나라 쌍용건설이 시공하여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많이 알려진 곳이다. 52도 기울어진 모습으로 배 모양의 수영장을 머리에 얹은 57층 빌딩 세 개로 이루어진 5성급 호텔이다. 하루 숙박비가 90만 원이 넘을 정도로 비싸지만 6개월 이전 예약은 항상 가득 차 있을 정도로 인기가 많다고 한다. 싱가포르 랜드마크에서 숙박을 할 수 있는 경험에 가치를 두고 기꺼이 지갑을 여는 것이다. 이렇게 우리나라는 삼성물산, 쌍용건설 외에도 세계에서 내로라하는 건설시공사를 여럿 가지고 있고 북미나 중동지역

까지 더하면 성공적으로 준공된 건축물이 셀 수 없이 많다. 미국이 트럼프, 하인즈, 디알호튼, 트라멜 크로우 같은 대형 건설시행사가 주가 되어 부동산을 개발하는 반면에 우리나라는 현대건설, 롯데건설, GS건설, 디엘이엔씨 같은 대형 건설시공사 위주로 기업활동이 전개되고 있어 토목건설이나 대형건축물 공사 수주가 용이하다. 이러한 장점을 잘 살려 우리 광주 서구가 세계적인 도시로 우뚝 설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랜드마크가 될 수 있는 건축물을 유치하기 위해 노력해야 하고 당장은 힘들더라도 이를 위한 발판을 다지기 위한 연구와 논의 등의 노력은 꾸준히 해나가야 할 것이다.

- 싱가포르 국민의 80%가 정부에서 분양하는 HDB아파트에 살고 있다는 사실을 싱가포르 재개발청 기관 관리자를 통해 상세한 설명을 들을 수 있었다. 전 국토의 90%가 국유화된 싱가포르는 땅은 정부가 소유하고 건설된 아파트는 국민에게 99년 동안 장기 임대하는 방식으로 소유하게 하고 잔금의 75%까지 저금리로 대출을 해주어 어렵지 않게 내 집 1채를 소유할 수 있게 하는 주거 복지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5년의 실거주 기간이 지나면 개인 간 거래도 가능하다고 한다. 우리나라의 토지임대부 분양주택과 유사하다. 이러한 제도를 통해 얻을 수 있는 가장 큰 장점은 높은 주택보급률이다. 수치상의 주택보급률이 아닌 실제 주택보급률을 높일 수 있다는 것이 가장 큰 장점이다. 현재 대한민국의 가장 큰 문제는 저출생 문제이며 이는 실제 주택보급과도 관련이 깊다. 결혼 생활을 위해서는 주거가 필수지만 신혼부부가 내 집 장만을 하기에는 꼬박 몇십 년이 걸린다. 광주는 자가점유비율이 61%로 전국 57%에 비교하면 다소 높지만 근본적으로는 청년과 신혼부부를 위한 맞춤형 주거복지 지원이 절실한 시기이다. 출생률을 이대로 방치한다면 인적자원을 기반으로 한 대한민국의 경쟁력은 한없이 추락하고 말 것이다. 싱가포르의 공공주택인 HDB아파트 공급제도를 우리 광주 실정에 맞게 잘 접목한다면 광주형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공급을 통해 고향을 떠나는 청년층을 붙잡을 수도 있을 것이다. 주거 안정을 통해 시민 모두가 안정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는 광주 서구를 만들기 위해 의정활동을 보다 심도 있게 추진해 나가고자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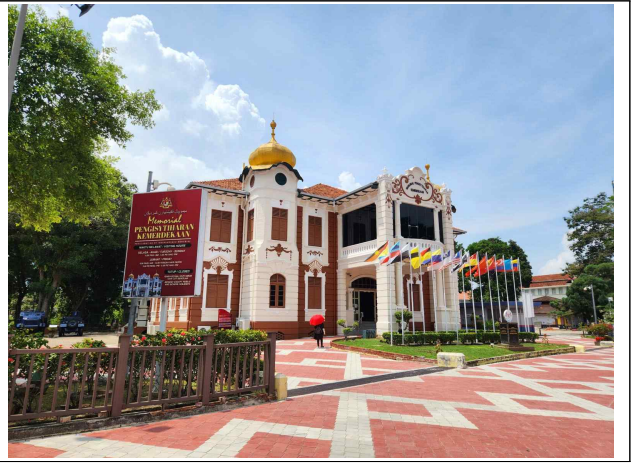
#### 다. 백종한 의원 소감문

- 벌써 몇 번이나 다녀왔지만 이번 공무국외출장을 통해 다녀온 타이,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3개국 출장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그리고 광주 서구의회 의원으로서 긍지와 자부심을 느끼기에 충분했고 그 벽찬 감동과 여운은 아직도 남아 있다. 신문이나 TV방송을 통해서 K-POP과 K드라마가 전 세계적으로 엄청난 인기몰이를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영국 프리미어리그에서 뛰는 손흥민은 전 아시아의 슈퍼스타로 자리 매김하여 한국의 위상을 드높이고 있다는 소식을 익히 들었던 터였다. 이번 공무국외출장을 통해 격상된 한국의 위상을 몸소 체험할 수 있었고 대한민국 정치인의 한 사람으로서 막중한 책임감과 사명감을 가지고 귀국 길에 오르게 되었다. 한국 사람이라는 것을 알아보고는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는 기본이고 “한국 드라마 너무 좋아요, 한국 정말 가보고 싶어요” 등 한국에 대한 관심과 애정이 얼마나 큰지를 눈빛 하나하나에서 읽을 수 있을 정도였다. 1인 GDP가 8만 달러가 넘는 싱가포르에서조차 한국에 대한 현지인의 깊은 관심은 이어졌고 한국말로 대화를 해보려는 식당 종업원, 현지 학생, 현지 기관 관계자들은 연신 넷플릭스에 방영 중인 K드라마와 빌보드를 장악한 BTS, 뉴진스 등을 언급하며 한국에 조만간 꼭 가보겠노라고 다짐을 해왔다. 과거에는 일본과 중국에 치여 관광지가 아니면 ‘코리아’라는 단어도 생소하게 듣던 현지인들의 얼굴이 오버랩되며 문화 콘텐츠로 인해 대한민국의 위상이 크게 올랐을 뿐만 아니라 문화강국으로써 세계 대중 문화를 선도하는 중요한 위치에 올라섰음을 실감할 수 있었다.
- 타이 방콕에서 차를 타고 약 1시간 30분 거리에 있는 아유타야를 방문했다. 유네스코 세계 문화유산으로 지정된 곳인 만큼 문화유산 보존 상태 및 관리상태가 훌륭했을 뿐만 아니라 기관 관리자의 설명과 친절한 응대가 특히 기억에 남았다. 39도의 땀별에서도 하나라도 더 안내하고 설명해 주려는 모습과 스토리텔링 방식의 재미있고 상세한 설명에 흐르는 땀도 잊은 채 14~18세기 아유타야 왕조의 수도가 당장이라도 눈앞에 환하게 펼쳐지는 듯한 착각에 빠져들 만큼 쉽게 몰입할 수 있었다. 다음은 말레이시아 수도 쿠알라룸푸르에서 약 3시간 거리에 있는 말라카를 방문했다. 유네스코 세계 문화유산으로 지정된 곳으로

현재 말레이시아를 있게 한 역사적인 사건들이 있었던 곳이다. 인도양과 남중국해를 잇는 지리적 이점으로 해상 실크로드의 거점도시로 성장한 이곳은 포르투갈, 네덜란드, 영국이 차례로 정복해 식민지로 삼았고 이러한 역사적 배경에 따른 건물 등의 흔적이 잘 보존되어 있어 2008년 유네스코에 의해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된 후 전 세계에서 관광객들이 하루가 멀게 몰려드는 장소다. 이어 2015년 싱가포르 최초의 유네스코 세계 문화유산으로 지정된 보타닉가든을 방문했다. 150년이 넘는 역사를 자랑하는 싱가포르 최대의 국립 식물원으로 열대림, 장미, 난초 등 다양한 식물종이 자라고 있으며 1,000여 종류의 난을 볼 수 있는 국립 난초 정원이 있을 뿐만 아니라 재배 고무의 개발 등을 포함하여 열대 식물학 및 원예학의 발전에 역사적으로 중요한 역할을 해왔던 곳이다.

- 우리 광주 서구에도 문화유산 4곳, 국가유산 자료 4개 등 총 16개의 국가유산이 지정되어 있다. 그중 2009년 유네스코 세계 인류무형문화유산으로 등재된 영산재는 2014년 광주광역시 무형유산 제23호(금호동, 광주전통불교영산회)로 지정된 바 있다. 또한 인권기록유산 5.18광주 민주화운동 기록물이 2011년에 유네스코 세계 기록유산으로 기록되어 세계 민주화의 성지로서 광주의 위상을 드높이고 있다. 이번 공무국의 출장 중 유네스코 문화유산 관리자 면담을 통해 각 문화유산 관리 및 보존방법에 대해 자세히 들을 수 있었고 이를 우리 지역의 우수한 국가 유산을 가꾸고 보존하는 데에 다각도로 접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나갈 예정이다.
- 우리 광주 서구는 아름다운 서구팔경이 자랑거리이다. 서구 1경 만귀정부터 금당산, 풍암호수, 서창들녘 낙조, 용두동 지식묘, 양동시장, 운천사 마애여래좌상, 서구 8경 5.18기념공원까지 다채로운 문화자원이 많다. 이 외에도 7월 백중 무렵 한 해 농사의 풍년을 기원하며 김매기를 재현하는 의식으로 매년 빠지지 않고 거행되는 서창 만드리풍년제는 우리 지역의 보배 같은 행사이다. 전통과 역사를 보면 유네스코 세계 문화유산으로 지정된 말레이시아의 말라카나 싱가포르의 보타닉가든에 결코 뒤쳐지지 않는다. 우리 스스로 우리의 역사와 문화의 가치에 관심을 갖고 보존과 계승을 위해 힘써 전통과 문화를 더욱 빛나게

가꾸어 자라나는 후손들에게 물려주는 것이야말로 해당 상임위원회  
의원으로서 마땅히 해야 할 책무일 것이다.



## 라. 오광록 의원 소감문

- 주민 접근성이 좋은 치평동 상무금요시장과 같은 도시형 시장, 난장 시장을 더욱 발전시키고 호남 최대의 전통시장인 양동시장을 경쟁력 있는 전통시장으로 탈바꿈 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각국의 전통시장을 벤치마킹하고 선진사례를 광주 서구에 접목하고자 출장을 함께 추진하게 되었다. 과거 삶의 모습을 그대로 보전하며 현지인들의 이색적인 주거 형태와 경제활동의 모습을 생생하게 보고 체험할 수 있는 수상시장은 비록 상품에 대한 경쟁력은 크게 없지만 그 경험을 돈과 시간을 주고라도 사고 싶어하는 관광객들로 붐비고 있었고 현재는 방콕에서 경험할 수 있는 특별한 문화 콘텐츠로 굳건히 자리 잡았다. 이를 통해 전통시장이 단순히 물건을 사고파는 장소를 넘어 과거를 기억하고 지역민들의 문화를 함께 공유하고 향유하는 의미 있는 장소로서의 가치도 함께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게 되었다. 테스코 로투스 아유타야 복합쇼핑몰에 가면 전통시장에서나 볼 수 있을 만한 먹거리 부스가 1층에 빼곡하게 입점하여 성행하고 있었고 바로 맞은편 스타벅스 커피전문점 외 유명 도너츠 전문점과 경쟁하며 비교우위를 보여주는 모습이 상당히 인상 깊었다. 망고, 수박 주스 외에도 팟타이, 파파야 샐러드 등 타이의 수백 가지가 넘는 전통 먹거리들이 위생적인 식품 부스에서 냉장·냉동 시설을 통해 깨끗하게 판매되며 이른 점심 식사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문전성시를 이루고 있는 것을 보며 길거리 음식은 비위생적이고 변질되기 십상이라는 인식을 단번에 깰 수 있었다. 전통시장에서 고급 복합쇼핑몰로 넘어가는 과도기적인 쇼핑몰 형태라고 볼 수 있겠지만 전통과 현대화라는 수요를 함께 충족시킬 수도 있는 좋은 사례라고 하겠다. 이와 맥락을 같이하여 광주 서구 치평동에 있는 상무금요시장은 매주 금요일마다 상무시민공원과 상무조각공원 사이에 있는 6차선 도로에 장이 선다. 180여개의 점포가 노점 형태로 운영되며 각종 야채, 과일, 생선, 의류, 먹거리 등이 저렴한 가격에 판매되고 있다. 이러한 도시형 시장의 가장 큰 장점은 소비자와의 접근성이다. 외출이나 출퇴근 시 잠깐 들러 장을 보기 쉽고 시간이 여유 있는 날은 시장 곳곳을 돌며 우리 이웃들의 경제활동 현장을 둘러보며 삶을 함께 공유하는 것도 매우 의미 있는 일일 것이다. 우리 지역의 상무금요시장과 같은 도시형 시장을 더욱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지자체 차원에서의 행정적인 지원 또한 반드시 필요하다.

농산물 원산지 표시에 대한 신뢰 구축을 위해 구체적이고 제도적인 지원 방안들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고 실명제로 등록되어 운영되는 상점에 대한 관리도 보다 투명하고 철저하게 유지될 수 있도록 지방 자치단체와 상인회 차원에서의 긴밀한 협력이 필요할 것이다. 또한 공공문화공연 기획을 통해 국악을 활용한 앙상블 합주, 밴드, 댄스, 마을합창단, 마당놀이 등 다양한 버스킹 공연을 위한 문화 콘텐츠를 발굴하고 테마 사진전, 자체 BI 개발, 포토존 운영, 전통주 시음회 및 퓨전 주막 운영 등을 통해 경험과 체험을 중요시하는 청년들이 자연스럽게 유입되어 함께 즐길 수 있는 복합문화예술공간으로써 전통 난장시장을 테마화 하는 데에도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옛 추억의 장터에서 과거와 현재세대가 만나 세대 간의 교류가 활발히 이루어진다면 우리 지역의 장터 문화는 더욱 다채롭게 이어질 수 있을 것이다.

- 말레이시아의 잘란알로 야시장을 가면 부킷 빈탕 뒤편에 거리를 가득 채운 노천 테이블이 쪽 늘어서 있는 진귀한 광경을 볼 수 있고 갖가지 식재료를 이용한 쿠알라룸푸르의 모든 먹거리를 맛볼 수 있다. 말레이시아의 전통 음식부터 화교 음식, 그 사이에서 파생된 페라나칸 음식 등을 한 장소에서 다양하게 맛볼 수 있는 것이다. 잘란알로 야시장은 현지 로컬 먹거리 문화를 현지인들뿐만 아니라 관광객들에게도 폭넓게 제공하며 그들 문화의 다양성과 전통성을 지키는 데 일조하고 있었다. 전통 음식은 그 나라 문화를 체험하는데 빠져서는 안되는 중요한 요소이며 이러한 이유로 서울 종로구에서는 통인시장을 서울형 문화 시장으로 지정하여 현재는 엽전 도시락을 통해 매년 이곳을 방문한 관광객들에게 이색적인 전통 먹거리 체험을 제공하고 있다. 우리 광주는 그런 의미에서 큰 매력이 있는 도시이다. ‘광주에 가서 음식 자랑하지 말라’ 는 말이 있을 정도로 남도음식은 푸짐하고 맛있기로 유명하다. 그중에서도 광주를 대표하는 음식 7미에 선정된 한정식, 오리탕, 상추튀김, 육전, 보리밥, 떡갈비, 주먹밥은 우리지역의 문화관광 산업에 기여할 가능성이 크다고 본다. 얼마 전 언론을 통해 대기업인 파리바게트와 뚜레쥬르의 영업이익을 100억 원 이상 앞지르며 놀라움을 자아낸 대전의 명물 성심당이 소개됐고 일명 빵집 순례를 위해 전국 각지에서 대전을 찾은 관광객들을 볼 수 있었다. 우리 지역 특색을 살린 제2의 성심당이 광주에서 나올 수 있게 우리가 지원해야 할

방안은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 이번 공무국외출장을 통해 심도있게 고민해 볼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그 대안 중 하나로 현재 광주 서구에는 없는 신규 야시장 개장과 그에 따른 전통시장 활성화를 제안하고자 한다. 양동전통시장은 1910년대부터 현재까지 100년이 넘는 역사를 가지고 있는 호남 최대의 전통시장으로 점포 수만 340곳에 달한다. 양동시장 내 도로로써 가치가 떨어지는 구6번로 약 300m 구간의 일방통행로를 일주일에 한 번 차 없는 거리로 지정하여 야시장을 개장해 전통시장에 활력을 불어넣는 방안도 함께 고민해 보자는 의견이다. 이번 양동통맥축제 기간 기존의 시장 이용객인 장·노년층뿐만 아니라 많은 청년층이 축제를 즐기고 SNS를 활용하여 행사를 공유하며 자연스럽게 바이럴 마케팅을 통해 우리 지역 축제가 전국에 알려지는 것을 보고 그 가능성이 무궁무진하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도로 건너 임동 구 방직공장 부지에는 광주 최대 규모의 복합쇼핑몰이 들어설 예정으로 부지매입을 완료하고 개발 절차가 진행 중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 양동시장이 지역민들에게 외면받지 않고 복합쇼핑몰과 상생하기 위해서는 전통시장만의 특색있는 차별화 방안 강구가 필요하다. 고급스럽지는 않지만 전통시장만의 정겨운 분위기 속에서 양동통닭, 홍어무침, 고기파전, 인삼튀김, 삼합 등 전통 음식을 안주 삼아 가볍지만 유쾌하게 즐길 수 있는 야시장 문화를 함께 만들어 갈 수 있도록 양동시장 상인회를 비롯한 서구청 전통시장지원팀과 서구의회가 구체적인 방안을 본격적으로 모색해 나갈 시기이다.

- 싱가포르 부기스 스트리트 재래시장은 2005년 공사를 통해 구역이 나뉘고 구역마다 가게들이 들어서 현재는 600개가 넘는 점포가 성행하고 있었다. 관광객도 많지만 주말이면 현지인들로 인산인해를 이루어 이동조차 힘들 정도라고 한다. 1인 GDP가 8만 달러가 넘는 싱가포르에서 현지인들이 쾌적한 복합쇼핑몰을 마다하고 주말마다 찾는 장소가 바로 재래시장이라니 정말 놀랍다고 생각했다. 우리 양동시장보다 폭은 좁고 사람은 많아 매우 번잡했으나 쇼핑은 생각보다 빠르고 편리했다. 상점이 구역별로 잘 정돈되어 있어서 물건을 바로 비교하기가 편리했고 무엇보다 전통시장임에도 모든 품목에 정찰제 표기를 해두어서 일일이 묻지 않고도 손안에 든 물건값을 금세 알 수 있었다. 전통시장은 물건을 싸게도 살 수 있지만 간혹 바가지를 쓸 수도 있다는 인식이 싱가포르 부기스 스트리트 재래시장에서만큼은 예외였다.

무엇보다 상점별로 동일하다 싶을 정도로 가격 차이가 적어 소비자는 가격 비교보다는 품질이나 디자인만 잘 보고 결정하면 돼서 간편하고 편리했다. 관광객이 외국 재래시장에서 이렇게 편리한 쇼핑이 가능한 것은 싱가포르 당국의 철저한 관리와 지도·감독을 통해 가능하다고 한다. 더욱 놀라운 것은 시장매출에서 관광객보다 현지인이 차지하는 비중이 훨씬 크다는 것이다. 이는 안전한 상품과 먹거리를 합리적인 가격에 저렴하게 살 수 있는 곳이라는 신뢰가 없으면 애초에 가능하지 않은 데이터 결과이다. 현지인들이 애용하고 즐기는 싱가포르를 대표하는 부기스트 스트리트 재래시장에서 신뢰의 가치를 찾을 수 있었다. 우리 지역의 양동시장에 접목하자면 눈에 보이는 모든 상품에 가격을 표기하여 정찰제를 확대하고, 생선과 어패류 등 수산물에 방사능 수치 표본 검사를 폭넓게 실시하여 소비자에게 안심할 수 있는 양질의 상품을 제공하는 방법 등이 다양하게 강구될 때 장기적으로 전통 시장이 경쟁력을 갖출 수 있을 것이다.



#### 마. 안형주 의원 소감문

- 말레이시아의 수도 쿠알라룸푸르 남쪽 25km 거리에 新 행정도시 푸트라자야가 있다. 20세기 초 고무농장 지역이었으나 수도 쿠알라룸푸르의 과밀과 혼잡에 따라 1980년대 행정수도 개발이 발의된 후 1995년부터 도시건설이 진행됐고 이후 2010년에 이르기까지 수도에 있던 총리청사와 관저를 비롯한 정부청사들이 대부분 이전을 마쳤다. 전 지역의 40%가 자연녹지로 구성되어 조경이 훌륭할 뿐만 아니라 철도 및 고속도로 인프라가 잘 구축되어 있어 수도 접근성이 매우 뛰어나다. 우리나라 세종특별자치시가 벤치마킹한 곳이 바로 말레이시아의 행정수도인 푸트라자야라고 한다. 관공서를 이렇게 지을 수도 있구나 싶을 정도로 제각각 다른 양식으로 지은 건축 작품의 향연에 눈을 뗄수가 없었다. 특히 중앙도로변에 있는 재정경제부, 법원, 푸트라자야 관리청의 각기 다른 형태의 건축양식이 오묘하게 어울려 말레이계, 중국계, 인도계 등 다민족국가의 다양성을 존중하고 포용하려는 말레이시아 정부의 기초를 느낄 수 있어 더욱 의미 있었다. 이러한 초현대식 건축양식으로 세워진 다양한 모양의 정부 부처 건물들 사이에서는 일주일에 두 번씩 야시장이 개장을 한다고 한다. 푸트라자야는 120만 평의 인공호수와 60만 평의 인공습지로 둘러싸여 있어 어디를 가나 공원과 호수가 근처에 있었다. 인공호수는 무더운 도시 기온을 낮추어 주고 시민들이 수상스포츠를 즐길 수 있게 해줄 뿐만 아니라 인공 호수로 유입되는 강물이 호수와 맞닿은 인공습지대를 통해 자연 정화되어 공급된다. 또한 홍수 발생 시 저류지 기능까지 수행한다고 한다. 아울러 인근에는 사이버자야라는 과학기술단지를 배치하여 과학기술을 위한 인적·물적 투자에도 박차를 가하며 자연과 과학이 조화를 이루는 신도시를 구축해 나가고 있었다. 푸트라자야 개발청 기관 섭외가 어려워 의문 사항을 상세하게 해소하지 못해 아쉬웠지만 도시기본계획 및 도시관리계획 수립이나 신도시 개발을 위한 정책 수립을 위해서는 한 번쯤은 반드시 다녀와야 할 핵심적인 도시라고 생각한다.
- 싱가포르 도시재개발청 관계자의 설명에 따라 듣고 본 싱가포르의 도시재개발사업은 도시개발의 모범정답을 보고 온 느낌이 들 정도로 빈틈없이 완벽하다는 말밖에는 할 말이 없다. 싱가포르의 면적은 약 740km<sup>2</sup>로

우리나라 서울보다 조금 크고 인구는 600만 명 정도이다. 이렇게 작은 국토를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중장기 발전 전략 수립이 매우 뛰어나 도시계획을 수출하는 나라로 유명한 싱가포르의 어딜 가든 도시 곳곳에서 공사가 한창이다. 더욱 놀라운 점은 공사로 인해 발생하는 소음과 먼지, 교통체증 등에 대해 싱가포르 국민의 저항이 거의 없고 이는 국가사업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가 매우 높기 때문이라고 한다. 현재의 아름다운 국토로 재탄생되기까지 도시재개발 사업 과정을 눈으로 직접 보아왔고 경험해 왔기 때문에 훌륭한 결과에 응당 치러야 할 대가라고 생각하는 싱가포르 국민, 이는 부정부패에 대해 강력하고 단호하게 대응하며 깨끗하고 투명한 행정 시스템을 구축해 왔기 때문에 가능하였을 것이다. 싱가포르 정부에 대한 신뢰는 자국민들뿐만 아니라 외국기업과 외국인들 또한 마찬가지이다. 부정부패가 없고 누구나 법 앞에 공정하며 행정·사법 시스템을 믿고 기업 경영만 열심히 하면 되는 이러한 곳에 세계 유수의 기업들이 몰려드는 것은 어쩌면 너무도 당연한 일일 것이다.

- 싱가포르에는 동일 형태의 건물이 단 하나도 없다고 한다. 이는 건축심의 단계에서 독창적인 건축설계가 아니면 허가 자체가 불가해서이다. 싱가포르를 상징하는 마리나베이샌즈부터 에스플러네이드, 가든스바이더베이 등 모든 보석 같은 건축물 하나하나가 어울어져 지금의 싱가포르 도시 경관이 탄생하게 되었다. 직접 눈으로 본 싱가포르의 야경은 평생 뇌리에 남을 정도로 완벽했고 우아했다. 공무원의 나태와 무능을 꾸짖는 나라도 많지만 싱가포르는 공무원들에게 최고의 대우를 해주며 일에만 몰두할 수 있게 의식주 및 후생 복리를 확실하게 보장해 준다고 한다. 그 결과 현재의 청렴하고 투명한 행정 시스템이 완성되었고 그에 힘입어 도시재개발사업도 성공적으로 이룩해 놓을 수 있었다. 총 6개의 지구로 나누어 마스터플랜을 수립하여 세부 실시계획을 추진하고 있는 싱가포르의 도시재개발사업 중 특히, 스카이라인이 심미적으로나 기능적으로 완성도 있다고 생각되는데 중심 상업지구 내 세계적인 금융사들이 밀집해 있는 곳은 가지각색의 초고층 빌딩으로 국토를 보다 효율적이고 입체적으로 쓰기 위해 노력하였고 구도심인 템피니스, 클라키 등은 재개발 시 기존 건물을 일괄 철거하지 않고 각 건물의

특징을 최대한 보존하는 방향으로 리모델링 하는 동시에 저층 위주의 건축물로 구성하여 주택과 상가가 공존하면서도 도시 경관을 해치지 않게끔 도시를 설계하였다. 우리 광주 서구도 작년 7월 광천동 재개발 사업이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받음으로써 도시관리계획 수립에 중요한 시기를 맞이했다. 광주의 중심이라는 지리적 이점을 잘 살려 지구단위 계획수립이나 경관지구 지정 제안 등을 통해 랜드마크 건축물이나 중요 도시계획시설 유치 등을 통해 광주를 대표하는 자치구로 거듭날 수도 있는 중요한 기회이기도 하다. 광주만의 특색있는 경관과 수려한 스카이라인 조성을 위해 층수 제한 폐지에 나선 광주광역시 민선 8기의 정책에 발맞춰 지역 내 우수 디자인 건축물을 폭넓게 유치하여 랜드마크를 조성하는 등 도심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촉매제가 필요한 시기이다. 토지이용을 보다 합리화하고 기능증진 및 미관을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한 이때 도시계획 전문가 및 주민들과 함께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우리 지역에 생활, 교육, 문화 등 기반 시설을 유치·구축하여 지역 주민들이 복리 혜택에 소외되지 않도록 의정활동을 추진해 나가겠다.

